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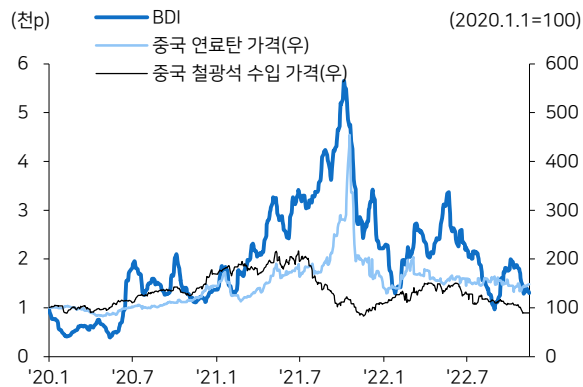
2022. 11. 16 (수)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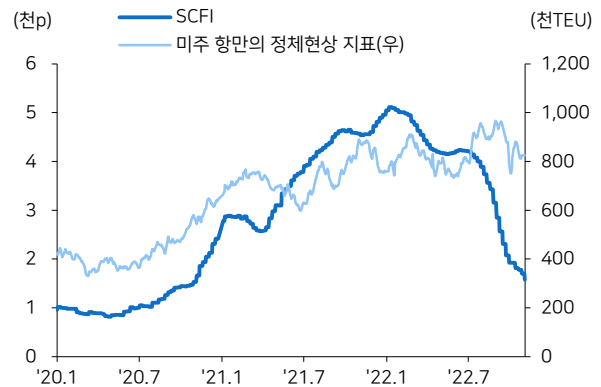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00.0p(-2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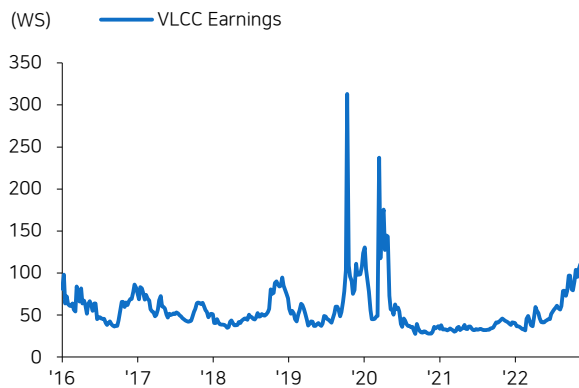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43.3p(-135.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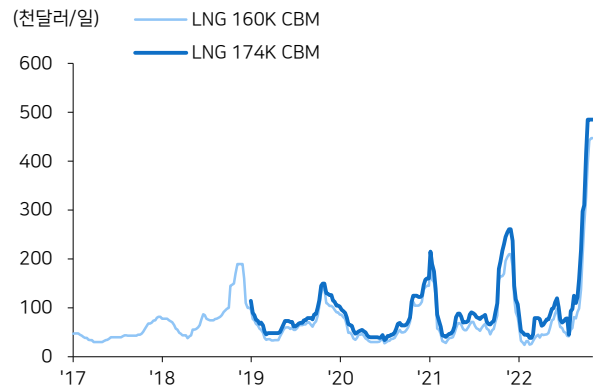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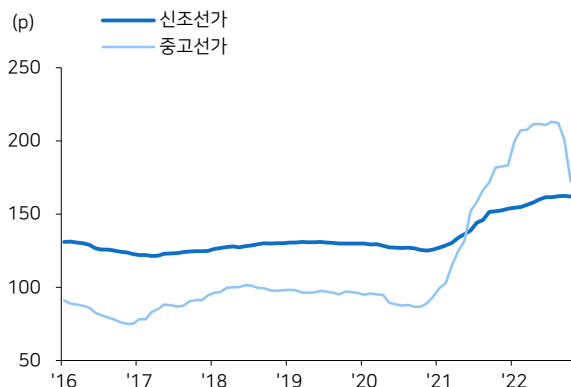
110.1p(+5.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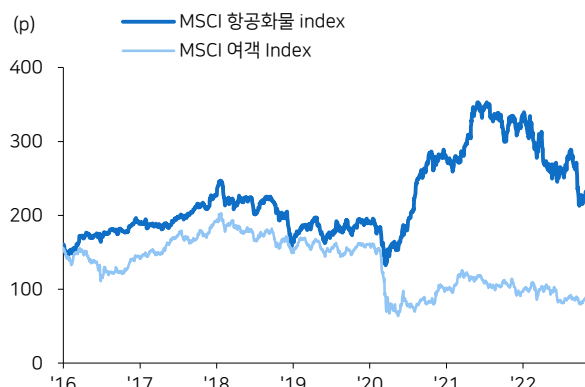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447.5p(+0.0p WoW)
497.5p(+12.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3p WoW)
164.5p(-7.7p WoW)

항공시장 지표

251.0p(-0.8p WoW)
93.6p(-1.1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한항공-아시아나 '운명의 날'..미국 합병 승인할까

16일 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과를 밝힐 예정으로 알려짐. 미국은 합병 필수 신고국인데다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업계가 두 항공사 합병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짐. 실현 가능 시나리오는 승인(조건부승인), 유예, 불승인 등 3가지 정도로 언급됨. (파이낸셜뉴스)

China's BYD makes car carrier debut with double PCTC newbuilding order

중국 BYD가 자국 조선소에 자동차/트럭 운반선 2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LNG 이중연료의 7,000CEU급 선박을 발주함. 총 8척 선대를 갖추어 자동차 운반 사업자로 거듭날 계획임. 나머지 6척은 7,000CEU와 9,200CEU급으로 다른 중국 조선소와 논의 중이라고 알려짐. 브로커들은 선가를 9,000~9,3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함. (Tradewinds)

Saipem lands multiple offshore drilling contracts worth \$800 million

Saipem이 중동 및 아프리카 서부에서 총 8억달러규모 계약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다수의 잭업리그와 심해 시추용 드릴십 1척을 포함한다고 알려짐. 중동 Perro Negro 12, 13은 모두 2023년 3~4분기 사이 시작된다고 알려짐. 서부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2022년 4분기에 시작될 예정임. (Upstream)

Al Seer Marine splashes out \$175m on product tankers at K Shipbuilding

케이조선이 11일 UAE 아부바디 소재 알 시어 마린으로부터 5만DWT급 PC선 4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2024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임. LNG DG 및 스크러버가 부착된 선박임. 1.75억달러에 계약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Indicators point to Freeport LNG not returning to service in 2022

미국 Freeport LNG 수출터미널이 정부의 재개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며 2022년내 가동을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도됨. 지난 월요일 LNG 고객들에게 2023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공지했다고 알려짐. 연간 15MTPA를 수출하는 해당 터미널은 6월초 화재 이후 가동을 중단한 바 있음. 8월에는 연말 중 가동을 재개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Upstream)

US producers remain cautious on investments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업계는 2023년 생산 및 에너지 전환에 투자를 고려할 것으로 보도됨. 석유보다는 원유 투자에 좀 더 가능성을 두었다고 알려짐. LNG 수출 수요 증대에 따른 현상으로 설명함. 북미 LNG업체들은 약 34MTPA의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대비 68% 증가한 수준으로 언급됨. 한편, 약 45%의 기업들은 정부규제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미국 가스 생산 확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음. (Upstream)